

| Bi-Weekly |

신영ESG

“ EU AI 라벨링 의무화 시행... 디지털·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병행해야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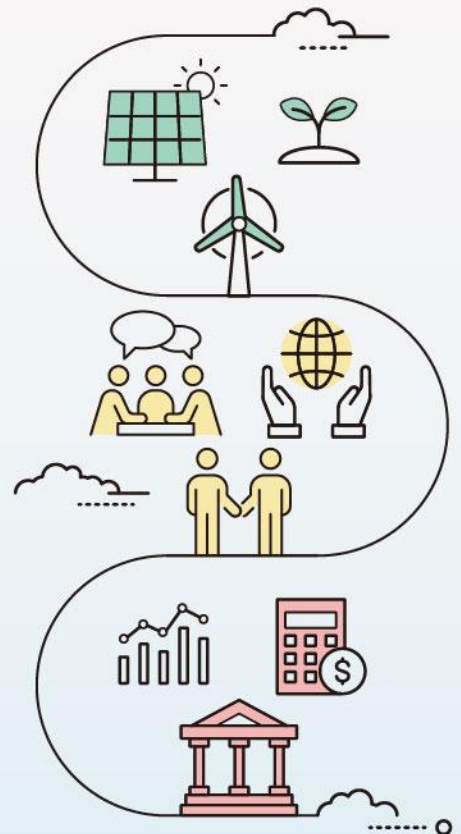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에이피알

ESG ETF 따라잡기
Stance Sustainable Beta ETF (CHGX)

ESG News Clipping



EU AI 라벨링 의무화 시행...디지털·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병행해야

EU AI act 50조에서 규정하는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됨

EU는 기업의 이행을 돕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강령도 마련함 →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게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및 라벨링 관련 투명성 의무 준수를 요구

이 규정은 EU 역내에 제공되는 콘텐츠라면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법안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이 부과됨

EU AI 규정 50조 시행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및 라벨링 본격화

EU의 AI Act(인공지능법) 내 AI 생성물의 표시와 탐지를 요구하는 규정인 제50조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함.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AI Act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AI 시스템 위험을 4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번에 시행된 규정에 따른 의무는 기만 및 조작의 위험을 해결하고 정보 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것임.

EU는 기업의 이행을 돕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강령도 마련함. 제50조의 투명성 요구는 법적 의무이나 강령 가입 자체는 자율임. 강령에는 19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짐. 강령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게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및 라벨링 관련 투명성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이 의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 및 탐지, 딥페이크 및 특정 AI 생성 출판물의 라벨링에 관한 것으로, 이 투명성 의무가 고위험 AI 시스템이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같은 다른 규칙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인공지능법 50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공급자)와 배포자(배포 담당자)로 구분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AI 서비스 제공자는 AI 시스템의 출력물(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것인지 탐지할 수 있어야 함.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배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딥페이크와 일부 AI 생성·조작 텍스트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표시 의무가 적용됨. 이 규정은 EU 역내에 제공되는 콘텐츠라면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데, 법안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3%라는 큰 과징금이 부과됨.

이처럼 EU에서 인공지능법 50조가 시행됨에 따라 대표적인 생성형 AI 기업인 구글, 오픈AI, 엔트로픽 등은 자사의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이

구글과 오픈AI는 규제 대응을 위해 C2PA 표준 기반 출처 정보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인 Synth ID를 적용해

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적용했다고 발표함.

먼저 구글의 경우 자사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인 Synth ID와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의 출처와 편집 이력,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인 C2PA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오픈AI의 경우에도 C2PA와 구글의 Synth ID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고 밝힘. 엔트로픽도 자사 생성형 AI인 클로드가 생성하는 결과물에 C2PA 표준 기반 출처 정보와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특히 엔트로픽은 워터마크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소셜 매체에 따르면 Synth ID와 같이 일부 편집 또는 다른 문서에 복사해 붙여 넣어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려짐.

주요 AI 회사들은 규제 대응을 위해 C2PA 표준 기반 출처 정보와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적용해 → 두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상호 보완하기 위함

참고로 EU 인공지능법이 비가시성 워터마크라는 특정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님. 법안은 기업이 AI 생성물을 식별하고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3개사는 AI 생성물을 식별하고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2PA 메타데이터와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결합하여 적용한 것임. 이는 각 기술의 한계를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여타 AI기업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C2PA: 콘텐츠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데 파일 내부에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를 심는 방식으로 제작자, 촬영 기기, 사용된 AI 모델, 수정 및 편집 이력까지 전용 검증 도구로 확인이 가능함

이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C2PA는 콘텐츠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데 파일 내부에 디지털 서명이라 불리는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를 심는 방식으로 제작자, 촬영 기기, 사용된 AI 모델, 수정 및 편집 이력까지 일목 요연하게 기록되어 전용 검증 도구(예: Content Credentials)로 확인이 가능함.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가 급증하자, 오픈AI, 어도비, 구글, MS 등이 주도하여 만든 C2PA연합의 결과물임. C2PA는 메타데이터로 스크린샷이나 파일 변환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은 콘텐츠 자체에 식별 신호를 심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성 워터마크(로고, 텍스트 등)'와 눈에 보이지 않게 픽셀이나 주파수를 변형하는 등의 '비가시성 워터마크(예: 구글의 Synth ID)'로 나눌 수 있음. 구글의 Synth ID는 일종의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로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미디어 전반을 커버하는 기술로 알려짐.

Synth ID의 텍스트에도 워터마킹이 가능한데 AI의 모델의 확률 점수 조정을 통해 통계적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기술이 적용됨 → 일부 편집 또는 다른 문서에 복사해 붙여 넣어도 지워지지 않음

Synth ID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미디어 파일에도 워터마킹이 가능한데 이러한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쉽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함

특히 Synth ID의 텍스트 워터마킹은 AI의 모델의 확률 점수 조정을 통해 통계적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기술로 AI를 통해 완성된 글이 사람이 읽기에는 자연스럽게만 전용탐지기로 보면 통계적 패턴(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어 AI가 쓴 글임을 판별할 수 있는 원리임. 이 워터마크는 일부 편집 또는 다른 문서에 복사해 붙여 넣어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려짐. 다만 이 워터마크가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므로 한 두 문장 수준의 짧은 글은 데이터가 부족하여 AI가 썼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처럼 사실 위주의 텍스트는 AI가 단어를 바꿀 확률 조정 공간이 없어 워터마크가 거의 심어지지 않는다고 함. 또한 인간이 단어를 전부 바꾸어 아예 새로 작성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 버리면 워터마크 신호가 크게 떨어지거나 지워질 수 있음. 특히 아직까지는 구글 등 비밀키 소유자만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함.

또한 Synth ID는 미디어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미지의 경우 픽셀 값 주파수를 변형하여 적용하며, 동영상에는 전 프레임에 보이지 않는 픽셀 패턴을 연속으로 삽입하는 워터마킹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오디오는 스펙트로그램 주파수 변환 방식을 활용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이나, 큰 소리에 묻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Psychoacoustic masking)에 워터마크 신호를 미세하게 심은 뒤, 다시 사람이 듣는 일반 음파(Waveform)로 복원하는 기술임. 이러한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쉽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함.

실제 오픈AI의 DALL-E 3로 이미지를 만들면 C2PA 서명과 함께 구글의 Synth ID 워터마크가 동시에 적용됨. 누군가 파일의 생성·편집 이력과 출처 정보인 C2PA 정보를 지우고 캡처하더라도 워터마크 검출기를 통해 AI 생성 물임을 확인이 가능함.

표 1. C2PA와 비가시성 워터마크의 장단점 비교

구분	C2PA 메타	비가시성 워터마크
장점	상세한 제작 정보 및 편집 이력 제공	스크린샷(화면 캡처) 후에도 신호 보존 가능
단점	파일 포맷 변환 시 데이터 소멸 가능	AI 생성 여부만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 (상세 이력 확인 불가)

자료 : 오픈A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그런데 이와 같이 AI 기업들의 대응이 나오고 나서 일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음. 최근 AI 활용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에서는 AI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일부에선 EU AI 라벨링 의무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이처럼 한편에서는 EU AI 라벨링 의무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함.

저작권 관련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조치가 정착될수록 이용자들은 오히려 '부메랑 효과'에 빠질 위험이 증가함

먼저 저작권 관련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인간이 직접 쓴 글을 AI로 단순 윤문·교정만 하더라도 'AI 생성물'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로 창작자들의 거부감이 크게 나타남. 이에 인간의 주도적 창작과 AI의 보조적 도구 활용을 정교하게 가려내어, 예술적 혁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한 예외 기준과 소명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의무화 조치가 정착될수록 이용자들은 '라벨이 붙은 콘텐츠는 가짜, 라벨이 없는 콘텐츠는 진짜'라고 맹신해 이때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악의적 사용자를 믿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에 빠질 위험이 큼. 악의적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해 스스로 AI 라벨을 달 이유가 없기 때문임.

여전히 기술적 라벨보다 콘텐츠의 확산 방식과 사회적 맥락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여전히 콘텐츠의 확산 방식과 사회적 맥락도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연구에 따르면 조작된 콘텐츠가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거나 이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달릴 경우, 사람들은 기술적 라벨보다 이러한 '사회적 신호'를 더 신뢰해 가짜 정보에 쉽게 휘말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여전히 규제의 사각 지대가 존재함

또한 이번 법안은 개인이 비상업적·사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 단위 또는 개인으로 위장해서 만들어 퍼지는 악의적 딥페이크와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

기업마다 제각각 탐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됨

또한 기업마다 제각각 탐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됨. 이에 C2PA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상호운용성 표준이 필요함. 언론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애플, 엔비디아, 카카오, 오픈AI 등과 워터마킹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워터마크 무력화 기술과의 경쟁 심화로 컴퓨팅 자원 소모 가중 우려 존재 → 이와 동시에 전력 및 탄소 배출 증가 우려 ↑

특히 일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발자가 클로드의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도구를 오픈소스(GitHub)에 공개하는 등 기술적 우회 수단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이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워터마크 무력화 기술을 막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자원 소모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와 동시에 전력 및 탄소 배출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음.

라벨링 제도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짜 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에 불과함 → 디지털·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필요

이처럼 EU 인공지능법 50조에 따른 라벨링 제도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짜 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에 불과함. 정교화되는 생성형 AI 시대에 단순한 '라벨링'만으로는 딥페이크 위협과 가짜 뉴스 등을 전부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워터마크와 같은 기술적 표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콘텐츠 게시자의 신뢰성을 따져보고 다른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근본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디지털·AI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업은 AI 라벨링 도입을 단순한 법적 규제 통과로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책임성 (Digital Responsibility)’을 증명해 고객의 장기적 신뢰를 얻는 ESG 리스크 관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ESS 배터리 경쟁 붙었다...나트륨이온, LFP 기술 추격

- 고정형 ESS 시장에서 나트륨이온전지가 낮은 원재료 가격, 우수한 안전성, 저온 성능을 바탕으로 LFP 배터리와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음
- LFP와 나트륨이온전지 간 기술 및 가격 경쟁이 ESS 단가 하락을 유도하여, 재생에너지와의 조기 결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저장에서는 양수발전이나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이 유리하므로, ESS 시장은 단일 기술 독점보다 규모와 목적에 따른 기술 다변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Comments

-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리튬이온 LFP 배터리와의 생산 원가 차이는 좁혀질 전망이며, CATL은 최근 연말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단가를 LFP와 유사한 수준까지 낮출 것임을 언급
- 나트륨 배터리는 LFP 대비 저온 특성이 우수하며, 이론상 사이클 수명도 3~4배에 달함. ESS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도 개선되어 시스템 측면에서 CAPEX, OPEX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
- 단기적으로는 선도 업체의 대량 양산 시기 및 실질적인 cost 하락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주안점

- Analyst 박진수

탄소 줄이고 소재 바꾸고...금호석유화학, '녹색화학' 체질 전환

- 금호석유화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및 재활용·바이오 원료 활용 소재 개발 확대 사업 체질 전환 중. 기존 석유계 원료와 범용제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 친환경 자동차 소재와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고부가 제품을 신규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전략
-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스코프 1·2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BAU) 대비 29%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Comments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탄소배출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축 범위 확대 중. 타이어용 합성고무인 재활용SM과 바이오 원료 적용한 SSBR 개발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제품 상용화 등
- 환경·고부가 사업 확대가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수익구조 개선과 신규 시장 확보에도 영향을 줄 전망. 회사는 3대 성장전략 관련 사업의 전체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6%포인트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

- Analyst 신흥주

호주 피두시안, ESG 펀드 그린워싱 73억원 벌금...내부통제 실패 첫 제재

- 피두시안 운용사의 펀드는 ESG 표방했지만 화석연료 기업 투자...법원, 730만 호주달러 벌금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ESG 펀드 그린워싱으로 민사제재를 이끌어 냄
- 투자내역 점검·전략 검토 미흡...ESG 감독 실패 첫 제재 → 이번 제재는 ESG 문구뿐 아니라 실제 투자내역을 점검·관리하지 못한 운용 과정까지 문제 삼음

Comments

- 이번 건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진행한 네 번째 그린워싱 민사제재이자 운용사의 ESG 주장에 대한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감독 실패를 문제 삼은 첫 사례
- 이전 ESG 준수가 단순한 공시 문제가 아니라 투자 선정부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과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로 의무화 됨 → 운용사의 ESG 주장은 강력한 시스템과 감독, 거버넌스로 뒷받침 되어야 함
- 영국·싱가포르·EU, ESG 펀드 그린워싱 규제 강화 추세

- Analyst 오광영

에이피알(278470.KS)

매수(TP 560,000원)

Sustainable Growth, Powered by Beauty Tech

현재주가(8/21) 385,0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	-	-	-
Bloomberg	1.54	0.00	0.64	5.25

주: KCGS : S~D 7등급
Bloomberg: 1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Bloomberg)

연도	ESG 등급
2022년	1.54
2023년	1.64
2024년	1.74
2025년	1.74

Key Data (기준일: 2026. 8. 21)

시가총액(억원)	144,137
배당수익률(26F,%)	1.1
외국인지분율(%)	37.8
주요주주 지분율(%)	
김병훈 외 5인	34.8%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3.6	33.4	76.2
KOSPI대비 상대수익률	3.0	9.0	12.1	-19.9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4	2025	구 분	단위	2024	2025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	-	안전사고 재해율	%	0.0	0.0	주주총회	4 주전 소집공고 실시
폐기물 발생량	톤	51.9	247.2	기간제 근로자 비율	%	14.5	15.1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	1.54	여성 근로자 비율	%	62.2	64.9	집중투표제	미실시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인증 추진 중			사회공헌 지출액	억원	8.41	14.57	배당실시	중간 및 결산배당(2 회)
환경경영 조직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이사회 운영 실적	사외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에이피알의 포용력,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미래 사회 원해 (메트로, 24.06.03) - 에이피알은 장애인 직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 - 장애인 직원 전체 임직원의 4.42% 해당하는 규모로, 의무 고용률 초과 달성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준	의류 기부하고 매달 공병 2500개 수거하는 에이피알 (조선비즈, 24.09.05) - 에이피알은 2021년 7월부터 공병 수거 사업을 통해 월 평균 2,500개 공병 수거 - 메디큐브 브랜드 공병 1개를 반납하면 300원 적립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 4,600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급된 적립금으로 환산하면 약 1,600만원 지급	에이피알 "국제 인증 마크 획득으로 친환경·안전 경영 키울 것" (연합뉴스, 26.06.05) - 에이피알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를 통해 글로벌 ESG 경영 체제 구축 선포 - ISO 14001 인증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장기적으로는 무재해 기반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교육 정기 시행 및 완료율 100%, 위험작업 개선 완료율 100% 등 경영 목표로 내세움
--	---	--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3년	[S]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5천만원 긴급 기부
2024년	[G] 주주환원 정책 발표
2025년	[G]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착수, 정보보호위원회 체계 구축
2025년	[G]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취득
2025년	[S] 캠퍼스별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025년	[ESG] 사외이사 및 임원 대상 ESG 거버넌스의 이해 교육 실시
2026년	[G] 윤리강령 제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026년	[S] 인권경영정책 승인 및 사회공헌 정책 수립
2026년	[E]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ESG 전략 - 뷰티 테크로 완성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사 ESG 전략은 K-Beauty No.1을 넘어 Global No.1 이라는 성장 비전 아래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함. 화장품과 홈 뷰티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뷰티 테크 사업 모델 위에 해당 철학을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환경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 공급망 탄소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제품 관련 전 생애주기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임. 사회적 측면에서 협력사 동반 성장 및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외이사 중심 독립적 이사회와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며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상장 이후 고성장 단계 국면에 진입해 있음에도 ESG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ESG Keyword

에이피알은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서 제품의 기획, 개발, 유통,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 에이피알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자 100% 자체 생산을 진행 중인 홈 뷰티 디바이스와 관련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자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임. 향후, 에너지 효율 개선, 제품 수명 연장, 재활용성 향상, 폐기 단계 자원 회수를 중심으로 ‘제품 전 생애주기 기반의 순환형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저전력 설계 적용으로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제품 과대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소비량 증가 및 환경 부담 확대를 방지하는 데에는 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에이피알 제품 및 국가별 주요 인증 취득 현황

국가	인증	내용	주요 제품명
세계 50개국	CB(IECEE)	전 세계 50여 개국 통용 전기·전자제품 안전 인증	AGE-R DEVICE 전 제품 ¹⁾
한국	KC	한국 전기생활용품 안전 인증	AGE-R DEVICE 제품 배터리
	FDA	시설 및 제품 등록	APR CO., Ltd, APR US INC, APR FACTORY Co.,Ltd
미국	FCC	미국 전자파 적합성 인증	AGE-R DEVICE 전 제품 ¹⁾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에 따른 일반 화장품 등록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2.0, 메디큐브 클라겐 젤리 크림, 메디큐브 클라겐 나이트 랩핑마스크, PDRN 라인 등
	OTC Drug	미국 일반의약품(OTC Drug) 등록	메디큐브 클라겐 글로우 선크림
	CE	유럽 전자파 안전 및 전기·전자제품 안전 적합성 인증	AGE-R DEVICE 전 제품 ¹⁾
유럽	CPNP	유럽 화장품 제품 등록	메디큐브 PDRN 링크 클라겐 젤 마스크, 메디큐브 클라겐 젤리 크림 등
	SCPN	유럽 화장품 제품 등록	메디큐브 PDRN 링크 클라겐 젤 마스크, 메디큐브 클라겐 젤리 크림 등
	PSE(CISPR)	일본 전자파 안전 적합성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부스터 프로 미니 롤러스, 부스터 진동 롤러 헤드, 부스터 보이 롤러 헤드 등
일본	후생성(PMDA) 등록 ²⁾	일본 일반화장품 후생성 등록	메디큐브 PDRN 라인, 에이프일스킨 히어로 무션 등
중국	CVC	중국 전자파 안전 적합성	부스터 프로
	위생허가 ³⁾	중국 식약처(NMPA) 내 일반화장품 인증	포텐트 향수 폼, 메디큐브 레드 전설러 등
싱가포르	IMDA	싱가포르 무선 안전 인증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부스터 프로 미니 롤러스, 하이 포커스 샷 롤러스 등
	HSA 등록 ²⁾	싱가포르 일반화장품 등록	메디큐브 클라겐 라인, PDRN 라인, 제로 라인 등
홍콩	OFCA	홍콩 무선 안전 인증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부스터 프로 미니 롤러스, 하이 포커스 샷 롤러스 등
	NCC	대만 무선 안전 인증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등
대만	TFDA 등록 ²⁾	대만 일반화장품 등록	메디큐브 PDRN 라인, 제로 라인 등
	TDR	중동 무선 안전 인증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등
중동	DM 인증 ³⁾	중동 Dubai Municipality 내 일반화장품 등록	메디큐브 PDRN 라인, 제로 라인, 에이프일스킨 A.C.E 라인 등
	SRIM	말레이시아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및 무선 안전 인증	부스터 프로, 울트라 톤 40.68 등
말레이시아	NFRA 등록 ²⁾	말레이시아 일반화장품 등록	메디큐브 클라겐 라인, PDRN 라인, 제로 라인 등

자료 : 에이피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Stance Sustainable Beta ETF

(CHGX)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8.20)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17/10/9	SharkNinja Inc	1.35%	(USD)	(NAV(좌) / 운용자산(우))
BM지수	the Change Finance Diversified Impact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Index	Palo Alto Networks Inc	1.31%		
구성종목수	60	Cloudflare Inc	1.28%	40.00	250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177.5	Amgen Inc	1.26%		
시장가격(USD)	33.54	Abbott Laboratories	1.24%	30.00	200
NAV(USD)	33.53	Intuit Inc	1.23%		
총보수(%)	0.49	Merck & Co Inc	1.23%	20.00	150
운용사	Stance Capital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1.23%		
		Willis Towers Watson PLC	1.23%	10.00	100
		Arista Networks Inc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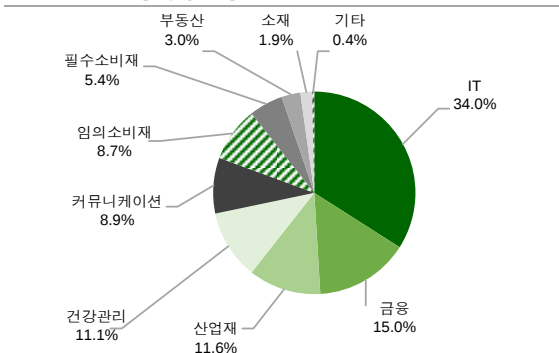
ETF 개요

Stance Sustainable Beta ETF(CHGX)는 2017년 10월 상장된 ETF로, Change Finance Diversified Impact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Solactive US Large & Mid Cap Index를 기반으로 하는 이 지수는 ISS ESG에서 제공하는 ESG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됨. 이 지표는 기업이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a) 금지된 산업, b) 논란이 되는 사업 영역, c)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또는 기업 부정부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업 관행 이력, d) 환경 영향과 관련된 기준 및 성과 기준 등임. 각 요소는 매출, 애널리스트 평가, 논란의 심각성 등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되며 편입 대상 기업은 각 해당 지표에서 ISS ESG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분기별로 리밸런싱 되며, 2025년 4월 4일 전에는 AXS Change Finance ESG ETF(CHGX)로 거래되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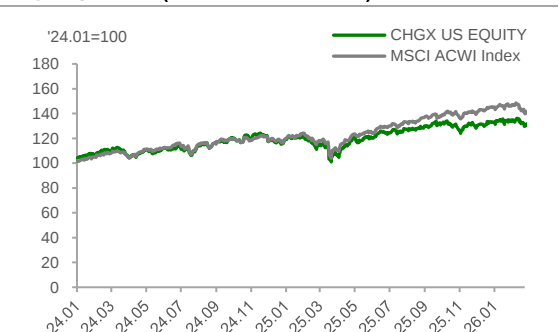
CHGX는 다양한 ESG 지표를 기준으로 선별된 약 100개의 미국 대형주로 구성된 동일 가중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화석 연료 산업 관련 기업, 화력 발전소, 그리고 인권 및 노동권, 건강, 기후, 오염 등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제외됨. 이에 미국 대형 기업 중 ESG 특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CHGX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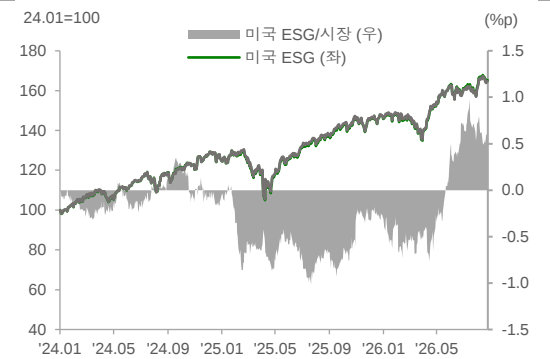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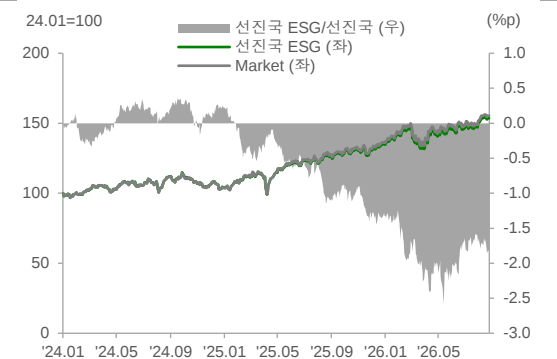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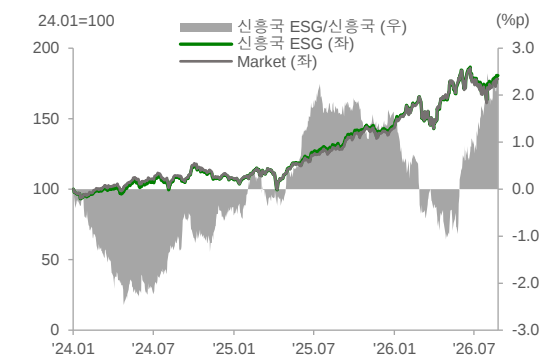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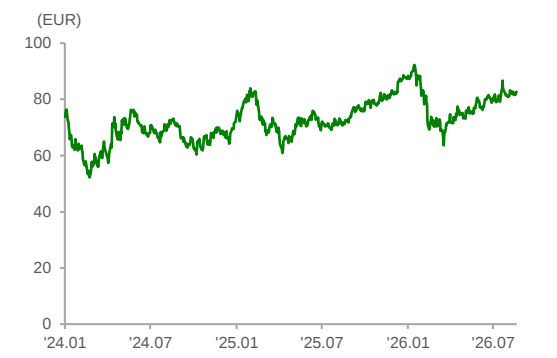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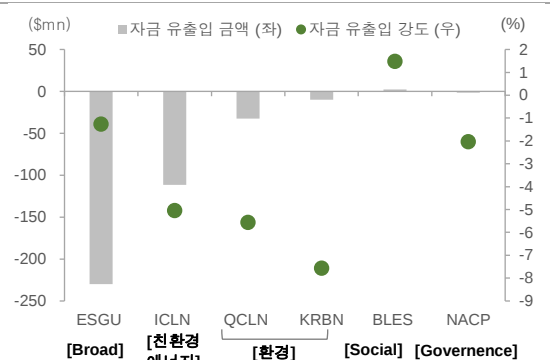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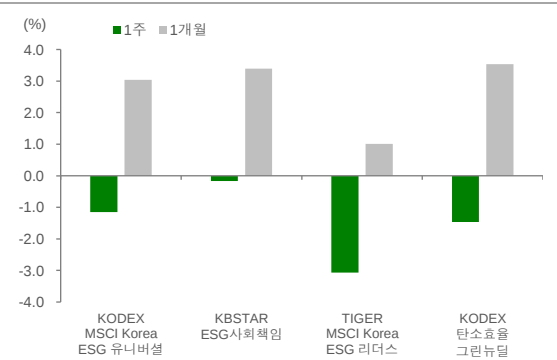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7,889	60	76.0%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7,202	13	13.4%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72	13	5.4%	13.4%
4	Social	6,176	5	4.8%	5.2%
5	Governance	467	3	0.4%	3.1%
6	기타	51	3	0.0%	3.1%
ESG 전체		128,757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8,117	-0.9	3.5	3.1	12.4	-230	571	-1.3	3.2
	ESGV	13,480	-0.6	4.4	3.3	13.7	-35	141	-0.3	1.0
	SUSL	1,210	-0.4	6.2	4.5	13.0	20	39	1.6	3.3
	NULV	2,261	0.1	4.6	5.3	11.9	-8	-12	-0.4	-0.5
	NUSC	1,315	-2.3	2.0	5.7	8.2	5	-140	0.4	-10.6
	ESGE	6,910	-0.3	6.4	2.5	7.4	0	54	0.0	0.8
	ESGD	12,287	-0.1	4.6	4.4	3.6	43	34	0.4	0.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EAGG	5,075	0.1	-0.1	-1.0	-3.7	117	806	2.3	15.9
	ICLN	2,210	-2.6	-1.2	-21.3	-8.4	-112	262	-5.0	11.9
Environment	TAN	1,285	-3.1	-3.6	-24.6	-17.6	-138	351	-10.7	27.3
	QCLN	585	-5.1	2.5	-20.4	-2.0	-33	-5	-5.6	-0.9
	SPYX	2,838	-0.9	3.5	2.8	11.3	28	51	1.0	1.8
	CRBN	1,178	-0.5	4.1	2.9	8.6	0	61	0.0	5.2
Social	KRBN	134	1.6	2.4	7.1	16.5	-10	-42	-7.6	-31.3
	BLES	168	1.0	4.7	5.4	7.3	2	14	1.5	8.4
Governance	SHE	333	-1.0	3.8	4.5	18.0	0	-7	0.0	-2.1
	NACP	75	-1.3	3.9	3.4	17.7	-2	0	-2.0	-0.1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202	-1.2	3.0	-9.2	27.3	0.0	-29.8	0.0	-14.8
FOCUS ESG 리더스	74	-4.6	0.6	-13.4	2.0	0.0	-53.2	0.0	-71.5
KODEX 200ESG	1,648	-0.4	3.5	-7.7	32.5	-88.6	539.9	-5.4	32.8
KBRIS ESG 사회책임	6,742	-0.2	3.4	-10.1	33.5	44.1	4,196.0	0.7	62.2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242	-1.0	2.9	-9.0	31.4	0.0	12.2	0.0	5.1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0	-3.1	1.0	-8.3	26.9	0.0	-50.7	0.0	-29.8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47	-1.5	3.5	-11.1	17.9	0.0	-169.9	0.0	-38.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21	-1.5	3.5	-11.1	18.1	0.0	-18.5	0.0	-8.4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21	-1.3	3.6	-10.8	18.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22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6.08.07\) 美 운수노조, 자율주행 트럭 규제 소송...로보택시 확산에도 제동-Impact-on](#)

자율주행 트럭 허용에 규제철회 소송 제기...운수노조 "운전기사 일자리 위협"
로보택시 200대 허용 추진에 노동계 반발...우버도 규제 필요성 제기
IT업계는 사고 감소 강조...노동계는 오작동·교통마비 우려

[\(26.08.07\) 탄소 14% 줄인 현대글로비스...‘무탄소 운송’ 전환 가속도-ESG경제](#)

21년 대비 온실가스 14.2% 감축...LNG 거쳐 암모니아·수소 선박 전환

[\(26.08.18\) 원전·주택·바다까지... ‘지속가능 금융’ 범위 넓히는 글로벌 은행들-Impact-on](#)

씨티, 지속가능 금융 기준 확대...주택·의료·원전까지 포함
원전, 지속가능 금융시장으로 진입...2024년 이후 채권 발행 급증
블루파이낸스도 지속가능 금융으로...NBK, 별도 금융수단 신설

S (사회)

[\(26.08.10\) 현대차그룹, 아파트에 주차로봇 투입해 최대 50% 더 댄다-ESG경제](#)

현대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 공동주택 실증사업
로봇 2대가 차량 이동...주차면 간격 좁아 공간 활용 확대
"스마트도시 주차 새 패러다임 구축...표준모델 도출 계획"

[\(26.08.11\) 사회적 가치도 '돈'으로 잴다...SK\(주\), 성과 2조원대-ESG경제](#)

고용·배당·납세 1조7739억원...납세 성과 급증
환경 1826억원·사회 542억원...사회적 가치 화폐화

[\(26.08.13\) 메타 스마트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독일선 형사 고발·인도선 소송-Impact-on](#)

독일 시민단체, 메타·레이벤 제조사 고발...“촬영 사실 알기 어렵다”
메타, 안면 인식 기능 검토 논란...장애인 접근성 둘러싸고 공방
인도 경찰, 시위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대중 감시 우려 현실화

[\(26.08.14\) 한화큐셀 美 카터스빌 공장, 3주 새 양곳 라인서 두 차례 화재-Impact-on](#)

한화큐셀 양곳 생산라인서 연속 화재...소방대 두 차례 출동
셀 생산까지 시작한 카터스빌...생산능력 확대 국면서 화재
지난해엔 협력사 근로자 사망...OSHA 중대 위반 2건 적발

[\(26.08.19\) 美 中 드론·배터리 밀어낸다...LG엔솔, 왜 방산 진출 얘기 나오나-Impact-on](#)

금기 깨고 군용 배터리 진출...트럼프발 안보 공급망 재편 편승
LG엔솔, 이미 3월부터 드론 배터리 공개
EV→ESS→드론...LG엔솔 美 공장의 ‘고객’이 바뀐다

G (지배구조)

[\(26.08.12\) 롯데 신동빈 ‘유동성 위기’ 급한 불 끄지만...본업 경쟁력 확보 과제-ESG경제](#)

美 사모펀드 TPG에 롯데렌탈 지분 61.2%, 1.3조원에 매각 성사
롯데쇼핑·롯데케미칼 등 핵심 계열사 수익성 회복 여전히 미지수
‘유동성 방어용 매각’→‘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연결될지 주목

[\(26.08.20\) 포스코이앤씨, 2600억원대 ‘고의파산’ 논란...K건설 신뢰 추락-ESG경제](#)

브라질 세아라주 폐생 산업단지 CSP 제철소 건설중 발생
계좌연 단돈 ‘2만 7000원’...법원도 “본사가 갚아라” 가처분
OECD 진정 제기 이어 인터폴 수배까지...‘외교 리스크’ 전락
포스코이앤씨 “2600억은 일방적 주장...현지법령 따라 파산”

정책 ESG 뉴스

ESG

[\(26.08.18\) 미국, EU에 CSRD·CSDDD 완화 요구... “필요시 모든 조치”-Impact-on](#)

“역외 적용·과징금 산정 방식 과도”...美 기업 부담 완화 요구
EU “규제 주권은 협상 대상 아냐”...추가 양보에 선 그어

[\(26.08.19\) EU, 기업 재무·ESG 공시 통합... 2027년 ‘유럽판 DART’ 전면 개방-Impact-on](#)

2027년 대중 전면 공개 목표로 1단계 수집 개시
API·기업번호·산업별 검색 가능
자본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자금 유입 촉진 기대

S (사회)

[\(26.08.07\) EU·미국 AI 관리 강화...기업 78% “외부감사 대응 자신 없다”-Impact-on](#)

EU는 AI 생성물 표시 요구...미국도 금융회사 AI 활용 점검
기업 78% “AI 외부감사 대응 자신 없다”
AI 침해 기업 97% 접근통제 미흡...승인 없는 AI 사용도 증가

[\(26.08.07\) 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반대...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ESG경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관훈토론회 답변...“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주주 이익 반하는 결정은 월권...피해 경영진·노동자에 돌아가”
‘쿠팡 사태’발 이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긍정적 태도 보여

[\(26.08.10\) 성별 임금·고용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돼...이번엔 법제화될까-ESG경제](#)

고용성평등지수 신설...채용·승진·근속까지 종합 평가
정부도 2027년 시행 목표...신장식안은 임금정보 청구권 포함
영국·프랑스 등 이미 시행...국회 병합심사 가능성

[\(26.08.11\) 기후부 “원전 계속운전 10→20년 검토”...반도체 전력·용수대책 제시-ESG경제](#)

재생에너지 확대하되 원전 보완 활용...계속운전 20년 연장도 검토
용인 전력공급 3단계 추진...“전력 낮아 반도체 건설 지연 없게 할 것”
호남 용수 영산강·섬진강서 공급...데이터센터 물 수요는 전수 추계

[\(26.08.12\) EU AI법 제50조 시행...클라우드·구글·오픈AI, 생성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Impact-on](#)

클라우드, 텍스트에 ‘통계적 지문’ 남긴다...복불해도 추적
EU, AI 생성물 표시 의무 시행...특정 워터마크 기술은 강제 안 해
구글·오픈AI도 출처 추적 강화...기업별 기술 대응 달라

[\(26.08.13\) 스위스 정부, ‘화석연료 금융 금지’ 국민 발의안 거부-Impact-on](#)

금지 규제, 해외 금융사만 이득...실효성 떨어져
2050 넷제로·기후공시 기존 제도로 리스크 관리

[\(26.08.14\) 호주 피두시안, ESG 펀드 그린워싱 73억원 벌금...내부통제 실패 첫 제재-Impact-on](#)

ESG 표방했지만 화석연료 기업 투자...법원, 730만호주달러 벌금
투자내역 점검·전략 검토 미흡...ESG 감독 실패 첫 제재
영국·싱가포르·EU, ESG 펀드 그린워싱 규제 강화

[\(26.08.20\) 中, 신장 제재 맞서 공급망 실사기관 겨냥...RBA 협력 금지-Impact-on](#)

중국, RBA·베리테 등 제재 명단에...글로벌 공급망 실사 ‘제동’
중국 기업 RBA 평가·검증 차질 ... AI기반 공급망 실사는 영향 제한적

일반 ESG 뉴스

ESG

[\(26.08.18\) \[KSSB 공시 컨버전\] 선도 기업들의 공통 옥에 티, 탄소노미 오류-ESG경제](#)

분류체계 정렬은 법정공시의 시작이자 끝
KSSB 선제 공시 기업의 공통 오류, 탄소노미
자의적 해석 배제와 엄격한 표준 위계 매핑 필요

[\(26.08.20\) 미국선 법무, 유럽선 재무...지속가능성 조직의 분화는 어디로?-Impact-on](#)

미국선 ESG팀이 법무로...CSO 23%가 법무조직에 보고
미국선 법무 쪽으로의 이동 관찰
유럽에선 공시 책임 CFO로...이탈리아 상장사 5곳 중 4곳

E (환경)

[\(26.08.07\) 중국 석탄발전 비중 첫 50% 아래...유럽선 재생에너지 주 전원 부상-Impact-on](#)

덴마크, 사상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하루 생산량 천연가스 소비량 추월
포르투갈, 태양광이 전력 생산 1위...가스 소비는 감소
중국 석탄발전 비중 49.7%...사상 첫 50% 밑돌아

[\(26.08.07\) ESS 배터리 경쟁 불었다...나트륨이온, LFP 기술 추격-Impact-on](#)

전기차에선 리튬, ESS에선 달라지는 배터리 선택
LFP-나트륨 경쟁, ESS 가격 낮춘다...재생에너지 결합도 빨라지나

[\(26.08.13\) '넷제로 선언' 시대 끝난다...유엔 Race to Zero, 6년 만에 실행 체제로 전환-Impact-on](#)

2020년 시작된 '넷제로 선언' 물결
석탄 규정 후퇴 논란...자발적 넷제로 캠페인의 한계도 드러나

S (사회)

[\(26.08.10\) "인사업무 3분의 2 자동화"...AI가 바꾸는 HR의 생존법-Impact-on](#)

HR 일자리 이미 줄었다...2022년 고점 대비 18% 감소
살아남는 HR은 개발자를 데려온다

[\(26.08.11\) 中 관영매체, "폭염이 한중 공급망 강점 보여줘...협력 확대해야"-ESG경제](#)

폭염 속 中 냉방용품 한국행·韓 화장품 중국행
“기후위기·공급망 불안에 지역 협력 중요성 커져”

[\(26.08.12\) 10년간 신규 상장기업 75.4%는 수도권에 본사...쏟아져 되레 심화-ESG경제](#)

CEO스코어 분석...상장사 71.6% 수도권 소재, 10년 전보다 1.8%p 증가
비수도권에선 충청권 '최다'...지방 이전은 10년간 HMM 등 29개사 그쳐
영남권 상장사 비중감소 눈에 띄네...부·울·경 1.5%p·대구·경북 0.7%p↓

[\(26.08.19\) 기업 AI 전사 확산 66%...핵심 업무 신뢰는 6명 중 1명-Impact-on](#)

AI 전사 확대 66%...핵심 업무 AI 에이전트 신뢰는 6명 중 1명
PwC도 AI 오류 못 걸러내...잘못된 작동 막을 수 있는 기업 23%
EU도 인간 감독·통제 요구...기업 평가는 기술 성능 중심

G (지배구조)

[\(26.08.14\) 대기업, AI·반도체·첨단소재 진출 활기...비주력 정리로 계열사는 감소-ESG경제](#)

102개 대기업집단, 석 달간 계열사 75개 편입·79개 제외
미래 먹거리 산업 사업영역 확대 vs 비주력 매각·청산 늘어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 (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에이피알	-	-	-	-	-	-	-	-

